



이시우 박사가 쓰는 불교와 수주

지구진화와 인류문명의 발전

오늘날 우리는 첨단 정보산업시대와 우주시대를 맞이하여 물질문명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그러면서 마치 이 우주가 인간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처럼 자연을 인간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유전자 공학과 전자기술을 결합하여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인조인간을 만들어 최고의 안락과 행복을 추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인류의 문명이 지구 역사에 비해 얼마나 오래 동안 발전해왔는가?

오늘날 우리는 첨단 정보산업시대와 우주시대를 맞이하여 물질문명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그러면서 마치 이 우주가 인간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처럼 자연을 인간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유전자 공학과 전자기술을 결합하여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인조인간을 만들어 최고의 안락과 행복을 추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인류의 문명이 지구 역사에 비해 얼마나 오래 동안 발전해왔는가?

사소통을 했다. 기원전 6세기부터 시작되어온 화합의 고대문화와 신화, 석존과 예수 등 성인에 의한 종교의 탄생, 산업 혁명에 따른 과학기술의 발전 등은 모두 지금으로부터 20초 이내에 이루어진 것들이다. 외계탐사를 계기로 한 최첨단과학의 발달은 지금으로부터 0.3초 내에 이뤄진 것이다. 이렇게 인간의 진화 과정을 지구의 역사와 비교해 볼 때 도구와 지혜를 쓰면서 인간의 역할을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불과 30초 이내로 지구 역사의 1500조 분의 1에 해당하는 '찰나'에 지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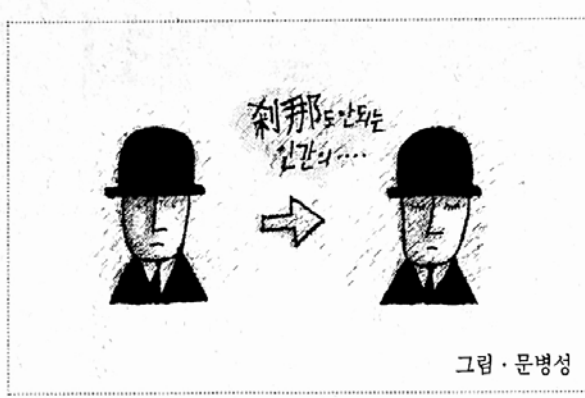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인류문명사 지구역사의 한 '찰나'

인간의 탐욕 · 自性집착

오늘날 지구운명 위기로

불법 조화로운 緣起 중시

현대인 크로마뇽이 등장한 것은 그믐날 밤 11시 56분이었다.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제창한 시간은 밤 11시 59분 57초경이고, 최초로 외계에 전문을 발사한 시간은 밤 11시 59분 59.7초이며,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달에 발을 내디딘 시간은 밤 11시 59분 59.8초이다.

그러나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우주의 섭리를 손끝 보듯이 훑어 일며 또 자연을 마음대로 쉽게 요리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었는가? 코페르니쿠스의 과학혁명 이후 1600년부터 오늘날까지 인간이 이룩해 온 문화와 문명의 기간은 긴 지구 역사에 비해 5경(5천조) 10백(100)분의 1에 해당하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에 해당한다. 그런데 바로 이 기간 동안에 자연의 섭리를 따라 온

전하게 지향해오던 푸른 지구는 심각한 암에 걸리고 말았다. 산업 쓰레기에 의한 땅의 오염, 유해한 배출 가스에 의한 대기의 오염, 무차별적 개발에 의한 환경파괴와 생물 종(種)의 멸종 등은 옛 조상들이 가꾸어온 지구를 단숨에 망쳐놓고 말았다. 특히 정부의 주도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첨단산업은 엄청난 에너지를 요구하며, 이 에너지는 바로 지구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벌은 꽃의 꿀을 따면서 꿀을 망치지 않는데, 인간은 지구에서 풀(자원)을 따면서 지구를 망쳐 놓는다. 어느 과학자는 인구 증가와 자원의 고갈 때문에 다른 행

성으로 옮겨가서 인간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주개발을 가속시킬 필요성을 말한 바 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인간이 가는 곳은 모두가 망가지고 폐허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경험해오고 있다. 행성탐사의 목적은 그들의 과거 역사를 잘 살펴보고 이것을 거울로 삼아 어떻게 하면 지구를 온전하게 잘 가꾸어 후손에게 푸른 지구를 물려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지, 결코 지구의 탈출이 아니다.

동양의 노장사상이나 불법에서는 빠르고 격렬한 경쟁적 움직임을 피하고, 느리고 조용한 정(靜) 속의 동(動)과 조화로운 연기관계를 중시한다. 오늘날 지구의 운명은 탐욕이란 찬란해 보이는 허공의 무지개를 좇아 마구 달리는 잔인한 경쟁과 특별해 보이려는 자성(自性)의 집착이 얼마나 오래 동안 지속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전 서울대 천문학과 교수



전신마비 · 가족도 못만나

중국동포의 무너진 꿈

한 중국동포가 병원비가 없어 3-4개 병원을 전전하다 병세가 악화돼 결국 팔다리가 마비됐으나 가족조차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지난날 26일 전해졌다.

통역사가 되려는 딸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지난해 여름부터 공장 야간직업과 막노동물 가리지 않고 해오던 이 중국동포는 열악한 마비 전신마비되는 '색전성 뇌경색'이라는 병을 얻었지만 병원비가 없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간병을 위해 중국에 있는 아내를 데려오려 했지만 초창에 필요한 진단서 발급을 병원이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병원 측은 밀린 병원비를 먼저 내기 전에는 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중국동포와 같은 경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여전히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존엄마저 짓밟히며 살아가고 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비인간적이고 몰인정한 국민으로 변해버렸는지 부처님 말씀을 되새기며 돌아보자.

■대상에 이르려면 네 가지 일이 있다. 그것은 보시로 모든 궁핍한 이를 도와주며, 높고 낮은 이를 차별하여 마음을 두 가지로 쓰지 않으며, 무엇을 남에게 주면서 무슨 희망이나 값음이 있기를 바라지 않고, 공덕을 중생에게 두루 베푸는 것이다. <쌍등경>

■선인은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과 같이 사랑하고 가없이 여기는 마음으로 중생을 사랑하는 것이다. <출요경>

■보살마하살은 온갖 중생에 대해 부모 형제 처자 제 몸 같은 생각을 갖는다. <대반야경>

■보살은 자심(慈悲)을 지녀서 사방의 사람들과 심지어 벌레의 부류까지도 가없이 여기되 갖난에 같이 보아, 다 해탈(解脫)케 해야 한다. <태지쇄호경>

영어로 배우는 불교용어

미륵전 Hall of Maitreya Buddha 칠성각 shrine hall of the Big Dipper

The hall of Maitreya Buddha's main statue is the Maitreya Buddha. Maitreya Buddha is the future Buddha. He waits until his time to be born on this earth arrives. He is the embodiment of love and compassion. He sits with his right elbow resting on his right knee. And his right foot or ankle is on his left knee. The left hand rests on the right ankle. The index and middle fingers of his right hand are slightly inflected and just touch the face.

미륵전의 주불은 미륵불이다. 미륵불은 미래불로 이 땅에 다시 태어날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랑과 자비의 화신이다. 미륵불은 오른쪽 팔꿈치는 오른쪽 무릎에, 오른쪽 다리나 발목은 왼쪽 무릎에 올려놓는다. 이때 왼손은 오른쪽 발목에 올려놓는다. 오른손 집게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을 구부려 얼굴에 살짝 대고 있다.

Chilseong, the Big Dipper, has roots in Taoism and Shamanism. The Big Dipper is thought to control both good and bad fortune. On the left side of the Main Hall or Judgement Hall, a large painting of Chilseong is sometimes hung.

칠성은 도교와 샤머니즘에서 유래한다. 북두칠성은 길운과 악운을 다스린다. 주로 대웅전이나 명부전 왼편에 큰 칠성탱화가 걸려있다.

김태환 · 부산대 강사, 철학 http://www.mindtree.net/



'임제록' 통한 선 공부 ⑤

의식에 속지 말라

왜곡되거나 손상당하지 않는다. 사람이 스스로 바로 보거나 잘못 볼 뿐이며, 모르거나 아는 것일 뿐이다.

사람이 법을 잘못 보거나 모르는 까닭은 스스로 법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의식하지 않으면 지금 있는 그대로 법다시 말했다.

살아 움직여서 조금도 멈춤이 없는 등 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허구인 사진을 보고 만족하는 것이다. 우리의 의식은 이와 같이 순간순간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가는 살아 있는 진실을

것이다. 이렇게 의식에 사진으로 남아 있는 허구를 가리켜 우리는 과거라고 일컫는다. 그러므로 의식은 늘 과거에 머물러 있다. 문제는 과거가 허구라는 것이다. 우리는 늘 현재에 있을 수밖에 없다.

순간에도 의식은 끊임 없이 흐르는 변화 속에 있다. 이처럼 지금 여기서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는 것이 의식의 문제이다.

이처럼 지금 나타나는 머물 없는 현상을 멈추어서 보거나 알려고 하는 것이 의식의 일이다. 그러나 의식이 아닌 마음 그 자체가 되면, 마음은 머물 없는 현상과 틀리 분리 되지 않고 머물 없는 현상과 하나가 되어 함께 머물 없이 움직인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허구에 빠지지 않고 진실 이대로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의식이 제공하는 사진을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머물 없는 움직임으로 살아 있어야 한다. 그것은 다만 마음 걸이에서 아무 조건이나 대상을 예상하지 않으므로써 의식의 침입을 용납하지 않는 무조견적이고 간절 한 믿음, 지금 이 순간 아무 모자람 없이 살아 있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실현된다.

간절한 마음통해 현실 파악을

이러한 법은 바로 지금 있는 그대로이다. 그러나 지금 있는 그대로가 바로 법이라고 생각하기는 말하면 어긋난다. 법은 무엇이 인연이 되어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인연이 나타나도 법일 뿐이고 나타나지 않더라도 법일 뿐이다. 법은 사람에게 의하여

에서 조금도 어긋나지 않지만, 의식하는 순간 의식이라는 허구에 가려져 스스로 잘못되어 버린다. 이것은 마치 동물원을 구경하려 간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동물을 보고는 바로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보는 것과 같다. 매 순간

보지 못하고, 늘 사진을 찍어 고정시켜서 보려고 한다. 그러나 실체는 전혀 고정되어 유지 없이 흘러가므로, 욕심에 따라서 사진을 찍는 순간 허구에 빠져버린다. 그러므로 사진을 바라보는 의식은 늘 허구를 바라보고 있는

"스님들께서 숙임을 하면 역술이 아닌 법력이 되고 맙니다. 숙임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줄간 ▶

- 바인더 차트식으로 되어 있어 하루치씩 꺼내 보게 되어 있습니다. -

음양오행을 몰라도, 역술공부가 부족해도, 이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좌정용과 휴대용' 만 있으면 그 고민은 이제부터 해결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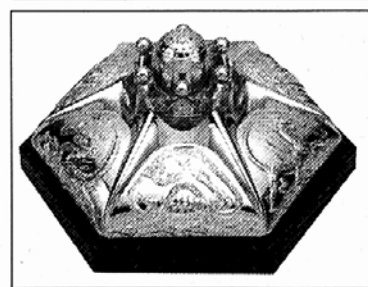
- 육임은 시간으로 보는 고등역술로서, 찾아오거나 찾아오거나 가서 만난사람의 비밀한 속사정을 먼저 말해줄 수 있게끔 되어있는 비서(秘書)입니다.
■ 출생 년월일시를 몰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찾아 온 그 날 그 시간 전화 온 그 날 그 시간 가서 만난 그 날 그 시간 만 보면 이미 그 해당 시간 칸칸 미디어 상대방의 비밀한 속사정들이 다 적혀 있는 기서(奇書)인 것입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여러명이 오거나 전화하거나 가서 만나더라도 각기 다르게 말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편리하고 신중합니다.
■ 또 어디를 출퇴근할때도 방은 열려 있고, 내일, 10일후, 한달후, 1년후 어느날 어느날에 은 방문자이든 아래 내용들을 볼 수 있도록 미리 써 놓고 의술 할 수 있으며, 미리 써 놓은 그것들이 신중하게 맞으므로 내가 지리에 있을때나 외출 할때나 나의 법력이 도력이 크게 커지는 것입니다.
■ 이틀데만
● 푸른색 띠를 쓴, 전파되는지
● 어떤 특별한 속사정을 미리 알고 있는지, 아니면 장차 겪게 될 것인지
● 종교가 하는일이 어떤것이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안일한지, 아니면 무슨 그 목적이 있는지, 또는 어느 일에 가서 성사 될 것인지
● 본인 이 저지른 일인지, 남으로부터 당한 일인지
● 상대방의 친성이 선한지, 악한지
● 상대가 이익을 잘 보았는지, 피해를 잘 보았는지, 손해를 잘 보았는지, 무리한 사업인지
● 하고자 하는 일의 시작과 종언과 결과가 어떻게 전개 될 것인지
● 지금 무슨 귀신의 침범을 받고 있는지, 그 귀신을 어떻게 제압시킬 수 있는 것인지

- 지금 누구의 산소에서 방패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 땅을 배소 시킬 것인지
●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가상이 흥한지, 길한지
● 이사를 어느 방위로 몇일날 해야만 개운이 될 것인지
● 부직, 국, 천도 고사등 수법을 행할때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렇다면 언제 해야만 좋을 것인지
● 이는 방위에서 사는 남녀 누가 묻는 목적을 방해 하고 있는지
● 부부간 누가 믿음을 하고 있는지, 한 남자가 두 여자 관계인지, 두 남자가 한 여자 관계인지, 남자가 적극적인지, 여자가 오히려 적극적인지
● 명(命)이 나올지 안 나올지, 낫는다면 언제까지 낫게 될 것인지
● 집(土)이 팔릴지 안팔릴지, 팔린다면 언제 팔리게 될지
● 임신한 아기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 이처럼 핵심사항들에 대해 물어서 마자, 전화 발자 마자, 가서 만나자 마자 즉시 말해주게 되면 상대방은 당장 기신이 제압당해 자기 가 알아서 생각하게 되고 맙니다.
■ 이 외에도 즉시 판단할 수 있도록 계획, 승진, 구제, 구직, 시험, 혼사, 임신, 가임, 이사, 소송, 질병, 애매, 도난, 가솔, 대인, 방문, 채움, 투자, 승부, 가격, 경매, 묘지, 기우 사항 등을 밝혀 놓았습니다. 육임은 참으로 신중하여 역술인 어떤 누구나 하고 싶어 하지만 워낙 난해하여 포기하고 마는데, 이처럼 쉽게 차트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환인전편 천역자 본들에게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문전화: 02-993-8680 부산지사: 051-851-2349
본 사: 02-996-3335 당일배달: 정현철
입금구좌: 한빛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북문
책 값: 최정용 1,300,000원 휴대용 1,500,000원 증보판 350,000원
매월 12일 문건(부록, 비디오 포함) 각종 카드를 장기대출 구입이 가능합니다.

- 육임 상인 장의안내 : 지방에 계시거나 참석시간에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는 비디오 수강이 가능합니다. 수강료는 80만원이며, 매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3시간 동안 강의 내용이 생생하게 담겨 30일내 도착됩니다.
● 참고 하신 것은 사주명리 10년후 해도 육임 3개월을 중무한 육임의 판단능력을 따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천문은 있는데 태를, 지리를 아는데는 기준, 인사를 아는데는 육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사주나 일민명리는 묻는 것에 즉답할 수 없는 구조를 알고 있습니다. 육임은 묻는 것을 시간인양이 딱딱 부러 뜨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언뜻보다 당장의 문제를 물어 봅니다. 여기에 육임의 진가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명당을 만드는 소원성취 명당 육기(六氣)방



이런분에게 사용하십시오.

1. 사업을 시작 하시는 분
2. 사업이 잘 안되시는 분
3. 하시는 일들이 잘 안풀이시는 분
4. 가정에 불화와 우환이 많으신 분
5. 소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분
6. 돈이 새어 나가고 융통이 안되시는 분
7. 공부를 안하고 자녀가 말썽을 부리는 분
8. 부부화합이 잘 안맞아 힘드시는 분
9. 집터나 묘터가 안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10. 위험한 일이나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분
11. 장사가 잘 안 되시는 분
12. 관재구설과 액운이나 삼재로 시달리는 분
13. 수험생 합격 기원을 위하여 미리 준비 하십시오.

※ 풍지 않은 사주말지라 할지라도 노력하면 좋은 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주) 명당육기(氣)방 051) 865-9933 864-7878

미국 일본 호주 등등에서 사용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홈페이지를 보십시오. 홈페이지 : www.6kibang.co.kr

가격 : 1호 10만원, 골드 1호 30만원, 골드 2호 40만원
흑운육방, 집터, 묘지, 조상함동묘, 3천 카운트 25만원 홍혈장전용 30만원